진보교육감 타깃되나

시·도교육청 인사·예산집행

감사원, 상반기중 전면 감사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에 일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일각에서는 서울·전북·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이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교육청은 최근 인사·채용에서 논란이 됐거나, 부당채용 사실이 드러난 곳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지난해 대학 재정 감사에 이어 올해는 지방 교육 행정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감사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로선 모든 교육청이 감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특혜·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일부 교육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의 폐교를 앞두고 해당학교의 교사 5명을 공립으로 특채했다. 일부 탈락자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사전 내정설 등 의혹을 제기하자, 시교육청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일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교조 출신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공립학교로 특채하면서 탈락자 1명을 바꿔치기해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간부 출신인 중학교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킨 뒤 산하 연구소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인사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인지를 가려달라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 꿈과 소망 들어주세요" 화순 사평초교 학생들이 7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꿈과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풍등(風燈)을 날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부모들 제목소리 낸다

'광주·전남 교육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 10일 출범

교육현장 이념논쟁 배제 학생중심 교육운동 전개

광주에서 교육계의 이념논쟁을 거부하고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칠 학부모 단체가 결성돼 주목된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공동대표 김황영·나현주·문효주, 이하 광주·전남 교학연)이 10일 오전 창립식을 연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정치·이념논쟁의 장으로 변질된 교육계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비판·견제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서부터 보수교육, 진보교육이 사라지고 진정 학생을 위한 교육, 가치중립적이고 학생중심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부모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인터넷 카페를 열고 신문고를 개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주장과 목소리를 듣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범위와 사업은 창립대회 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광주·전남 교학연 정미경 사무국장은 "앞으로 교육청의 정책도 시시비비를 따져 학부모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태우 '침' 시술자 검찰, 끝내 못밝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노태우(80) 전 대통령의 기관지 속에서 발견된 침을 시술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술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는데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침 시술자를 절대 밝히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침 제작업체를 통해 시술자를 추적하려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시술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 진단 결과 길이 7㎝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교육평가원, 교사 임용시험 위탁 중단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등교사 신규채용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맡지 않겠다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시험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초중등교사 신규전형 시도 공동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가원은 올해부터 임용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교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주관 교육청을 지정해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출제와 채점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교육학 시험, 논술,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 실기 등 5~6단계를 거치는 임용시험의 특성상 시도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30~40일 간 700~1000명의 출제 · 채점위원 확보도 어려워 올해 시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관리위는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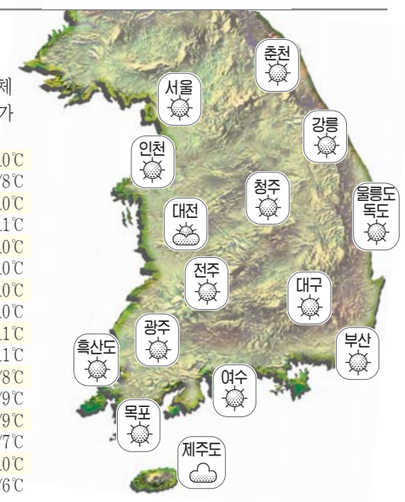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3분 해짐 18시 34분 달뜸 18시 36분 달짐 06시 17분

아침 안개 주의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다.

광 주	구름조금	1/10℃
목 포	구름조금	2/8℃
여 수	구름조금	4/10℃
나 주	구름조금	0/11℃
완 도	구름조금	2/10℃
구 례	구름조금	0/10℃
강 진	구름조금	1/10℃
해 남	구름조금	1/10℃
장 흥	구름조금	1/11℃
순 천	구름조금	2/11℃
영 광	구름조금	0/8℃
진 도	구름조금	2/9℃
전 주	구름조금	0/9℃
군 산	구름조금	0/7℃
남 원	구름조금	-1/10℃
흑산도	구름조금	3/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1.5m
먼바다	북~북동	1.5~2.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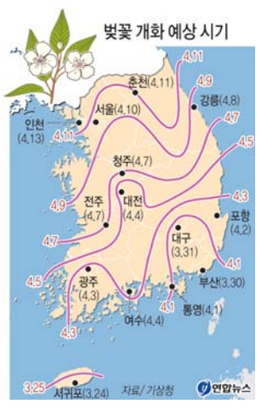
	밀물	썰물
목포	01:51 14:19	07:16 19:40
여수	09:12 21:29	02:50 15: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 씨						
최저/최고	0/10	0/10	-1/7	-2/9	0/10	1/11

광주 벚꽃개화 4월3일 평년보다 1~2일 늦어

광주에서는 벚꽃이 다음달 3일 첫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2012년 벚꽃 개화 전망'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1~3일 정도 빠르고, 평년(1981~2010년)보다 1~2일 정도 늦겠다.

올해 벚꽃은 서귀포에서 오는 24일 가장 먼저 꽃을 피워 광주에서는 다음달 3일, 여수는 다음달 4일, 전주는 다음달 7일에 각각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부지역에서는 다음달 6~14일 사이 절정을 이루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